



단기 바닥권 형성 과정

Why This Report

KOSPI가 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최근 1,910pt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거친 상황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자율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반등에서 60일 이평선 회복에 실패하면 60일 이평선 이탈에 대한 안착이 확인되고 본격 하락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OSPI, 매물소화 과정 진행된 모습

- 금년 들어 조정이 진행된 1, 4월에 거래대금 증가하고, 횡보하거나 상승한 1, 3월에 거래대금 감소해 조정 시 저가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나타남
- 최근 조정 과정에서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나타냈고, 전일 급등 과정에서 거래대금 감소해 매물 소화 과정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판단

중요한 지지대를 확인한 KOSPI 대형주 지수와 견조한 중소형주 지수

-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던 KOSPI 대형주 지수는 조정 과정에서 작년 11월 저점대에서 양봉 형성하면서 반등해 중요한 지지대 확인한 모습
- KOSDAQ지수와 더불어 KOSPI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미 작년 9월 고점대 돌파,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상승 가능한 모습

단기 지지대에 도달한 주요 글로벌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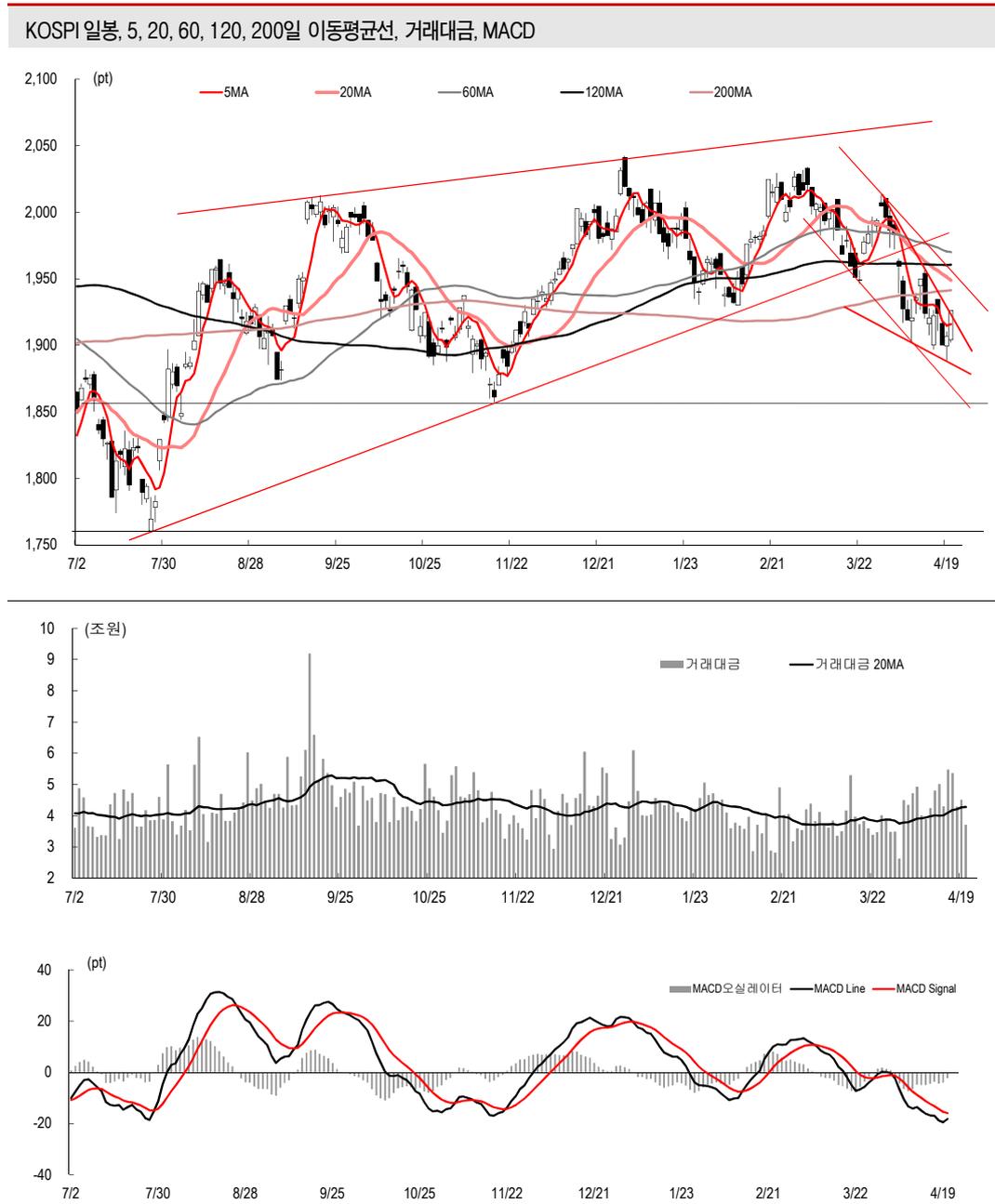
- 미국 S&P500지수는 일봉상 상승 추세선과 60일 이평선이 위치한 가격대 도달해 반등 가능한 모습. 독일 DAX 30 지수는 작년 하반기 고점대와 하락 채널 하단선의 지지대 도달
-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20일 이평선과 하락 채널 하단선에서 반등
- 주요 글로벌 증시는 중기 이상의 고점대를 만드는 과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단기 반등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 판단

단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

- 매물 소화 과정 거쳐 소폭의 등락 있더라도 단기 반등 국면 진행 전망
- 60일 이평선 단기 목표치로 설정, 동 이평선 회복에 실패하거나 회복 후 이탈할 경우 위험관리 필요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 매물 소화과정 진행된 모습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가 지난 4월 9일 장 중에 1,910pt 선에 도달한 후 지금까지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횡보 국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는 의미 있는 반등에 나섰다. 전일 상승으로 4월 고점에서 그은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추세 추종형 보조 지표인 MACD에서는 조만간 매수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구조적으로 최근 반등 시도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60주 이평선을 이탈한 후에 강한 하락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60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동 이평선의 기울기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횡보 과정을 통해 매수세가 소진되고 아래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작년 5월과 같은 강한 단기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과 같이 하락하는 60주 이평선을 이탈하고도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횡보 후에 상승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4월 중반 이후의 주가 흐름은 불행 중 다행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KOSPI를 긍정적으로 보는 다른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저가 매수세를 들 수 있다. 금년 들어 조정 폭을 확대했던 1월과 4월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모두 4조 4천억원대였다. 반면 상승했던 2월은 3조 6천억원, 횡보했던 3월은 3조 8천억원대였다. 즉,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매물이 출회되면 그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식을 받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동

주식시장 투자전략

평균선 구조로 지금과 가장 유사한 상황은 1995 ~ 1,996년 이다. 이 당시에는 횡보 후 추세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지금과 차이점은 조정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줄고, 상승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조정 압력이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금은 강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일과 같이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강하게 반등한 것은 그 만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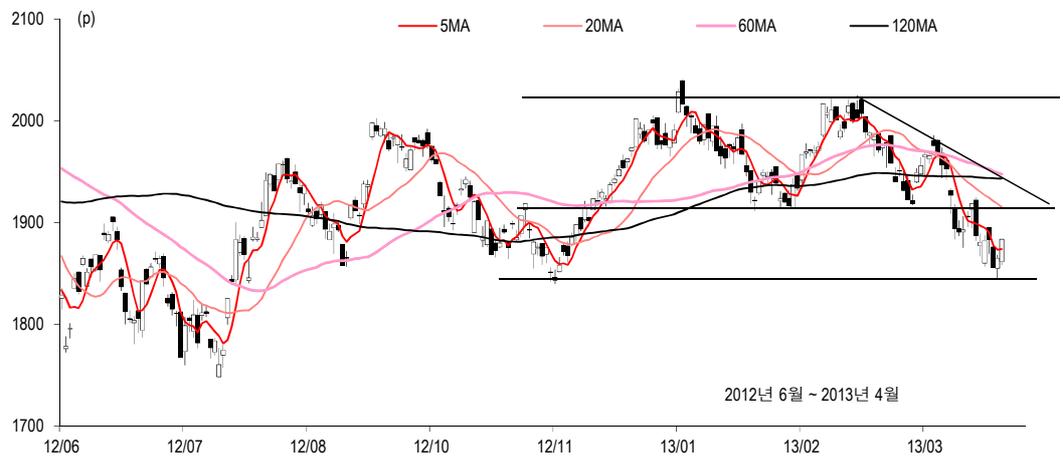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중요한 지지대를 확인한 KOSPI 대형주 지수와 견조한 중소형주 지수

KOSPI 가 2월 저점대인 1,928pt 를 이탈할 때, 다음에 위치한 이전 저점의 지지대는 1,850pt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KOSPI 가 그 가격대까지 가지 않고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형주 지수만 놓고 보면 이미 작년 11월 저점대를 확인한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중요한 지지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바닥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 상황이라 판단된다. 아직 단기 하락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전 저점대에서 양봉 형성 빈도가 높게 나타나 저가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 대형주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작년 11월 저점대의 지지력 확인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KOSPI 중소형주 지수는 KOSDAQ 지수의 강세와 맞물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월 조정 과정에서도 중기 상승 추세선과 120일 이평선이 위치한 가격대에서 지지 받았고, 상승 과정에서 이미 작년 9월 고점의 저항도 돌파했고, 지지되는 이평선도 단기 이평선으로 옮겨가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형주 지수가 중요한 지지대에서 바닥을 확인해주고, 중소형주 지수의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KOSPI 는 보다 의미 있는 반등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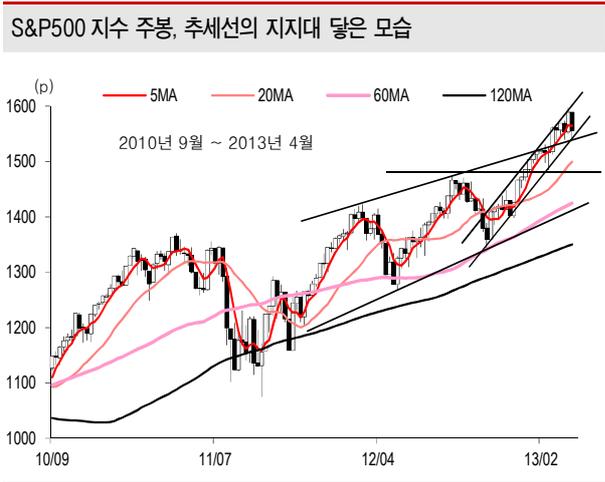
KOSPI 중형주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견조한 주가 흐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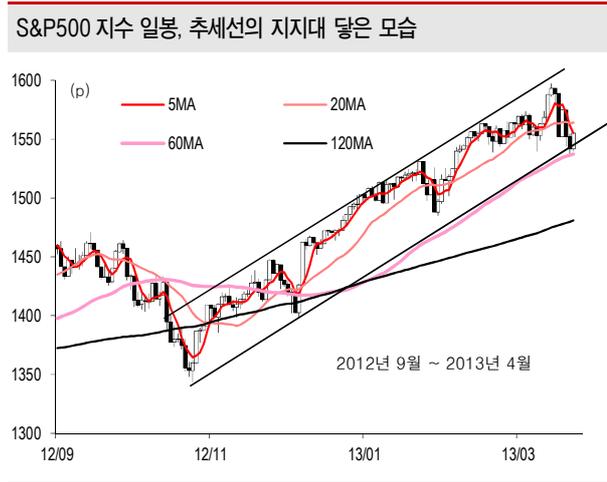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단기 지지대에 도달한 주요 글로벌 증시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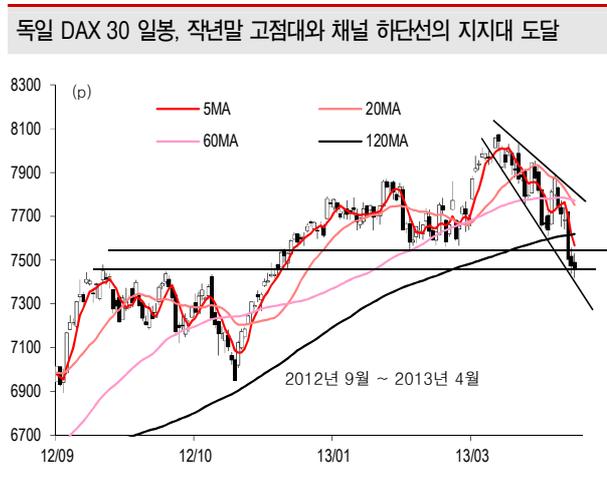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한국시장과 상관관계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해외시장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조정국면으로 진행되던 미국 S&P500지수는 60일 이평선과 일봉상 추세선, 주봉상 추세선 등의 지지대에 도달한 모습으로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반등 가능한 모습이다.** 하락세가 진행되던 독일 DAX30 지수는 이미 120일 이평선을 이탈할 정도로 하락했지만 채널 하단선과 작년 하반기 고점대의 지지대에 도달해 반등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상해지수도 120일 이평선과 채널 하단선에서 반등한 모습이다. 이들 글로벌 증시가 중기 이상의 고점대를 만드는 과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단기적인 반등 국면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 단기 저점대 형성 과정, 60일 이평선 목표로 설정

KOSPI 가 60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동 이평선이 하락전환되는 등 강한 하락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에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올해 들어 조정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늘고, 반등 과정에서 줄어드는 등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 하방 경직성에 대한 신뢰는 높다고 판단된다. 전일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은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내부적으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지수는 작년 11월 저점대의 지지력을 확인했고, 중소형주 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 KOSPI 전반적으로 반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미국 S&P500지수가 60일 이평선과 상승 추세선의 지지대에 도달했고, 독일 DAX30지수는 작년 하반기 고점대와 하락 채널 하단선의 지지로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외변수는 중기 이상의 고점대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KOSPI 는 추가 반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전일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다만 반등에 성공한 후에 60일 이평선 돌파에 실패하거나 돌파한 이후라도 동 이평선이 지지되지 못하면 다시 조정 폭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이다.